'안전지킴이' 양성소, LG Display 안전학교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 안전관리자의 능력, 그리고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산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아닐까 싶다. 현장 근로자들은 '제품생산'이라는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요인이 가장 많은 작업현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따라서 이들이 안전을 얼마나 생각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다.

LG Display는 바로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가장 큰 원인이 현장 직원들의 안전의식이라고 보고, 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많은 투자를 기울여왔다.

'LG Display 안전학교'는 바로 회사의 이러한 취지 아래 설립된 곳이다. 자신들의 교육이 산업현장 안전의 초석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고 있는 'LG Display 안전학교'를 찾아가봤다.

취재·사진 | 임동희 기자(ldhfree@safety.or.kr)

교육의 가장 큰 가치는 '안전의 생활화'

흔히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곳 'LG Display 안전학교'는 이 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높지만, 단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즉, 안전에 대한 열망은 강한데 안전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직원들의 잠재된 안전에 대한 욕구와 열망을 현장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그리고 교육생들에게 안전에 대해 항상 생각해나가고,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행동을 하게끔 주문한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형 교육을 지향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욕망을 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곳 'LG Display 안전학교'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체험위주의 교육과 철저한 평가로 교육 효과 극대화

이곳 'LG Display 안전학교'는 처음부터 모든 공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2004년 설립된 5공장 안전학교는 사고다발 공정 위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훈련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다 안전학교에 대한 교육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자, 2005년 3월과 2006년 1월에 공장별로 안전학교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그리고 2008년 1월에는 1~3공장과 조립공장을 대상으로 했던 안전1학교, 그리고 4~6공장을 대상으로 했던 안전2학교를 통합해 'LG Display 안전학교'를 설립하게 됐다. 이때부터 교육도 기존의 3일 과정에서 4일 과정으로 확대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현재 'LG Display 안전학교'의 교육은 구미공장 현장사원 및 협력사 사원들을 대상으로 32시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날 교육은 위험예지 훈련 등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2일차에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과 심폐소생술 등의 보건교육, 그리고 3일차에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 방법, 대피요령 등 소방대응능력을 높이는 훈련이 실시된다.

마지막 넷째 날에는 공정안전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산업재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수강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형석 학교장

안전교육을 실시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우려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뿐 안전을 배우려는 열망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 안전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현장의 재해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되어 국가재난과 재해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점을 모든 기업관계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동천 학교장

생산성에 밀려 안전이 등한시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전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안전은 나 자신과 동료 근로자,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 나서서 안전을 지켜가는 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LG Display 안전학교도 누구나 안전을 생각하고, 또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안전도 즐겁게 받아들여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제 안전도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이론 교육을 겸비한 체험위주의 교육을 지향한다. 또 과제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진행해 교육의 효과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각 팀별로 과제를 제시하여 토론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직원들 간의 단결력과 공동 대응능력도 동시에 높여나가고 있다.

수료생들은 현장의 안전지킴이로 활동

'LG Display 안전학교'는 쉽게 말해 '안전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지금까지 246차에 걸쳐 총 5,781명(9월 10일 기준)이 수료했을 정도로 이곳을 거쳐 간 '안전지킴이'들은 굉장히 많다.

교육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우수하게 나타난다. 수료생들은 각 공정으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현장의 문제점들을 살피고, 관련부서에 그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요구한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최우수 안전지킴이에게 상패를 시상하는 등 수료생들의 자긍심과 수료 이후 안전지킴이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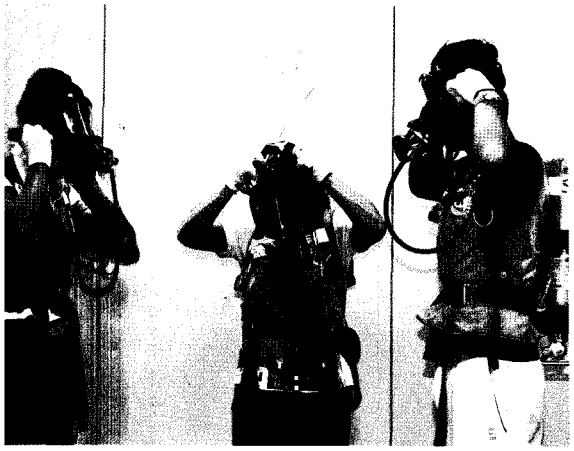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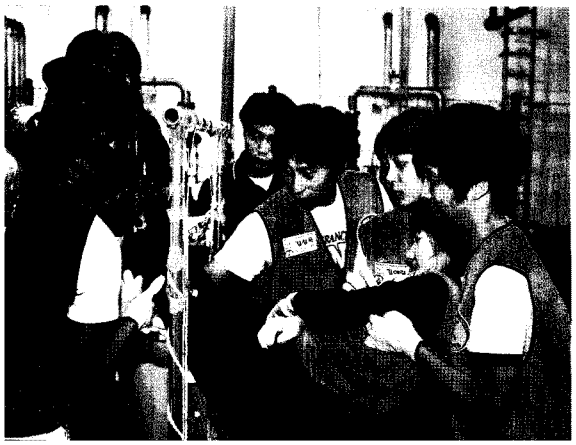
이렇게 '안전지킴이'들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을 챙겨나가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LG Display 전체의 안전의식은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어느새 사업장에 자율안전 문화도 확고히 정착됐다.

안전에 대한 효과만 큰 것이 아니다. 서로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 안전지식은 물론 직원들 간의 단결심까지 높아졌다. 수료생들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이 크게 활성화됐을 정도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곳 안전학교는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 외에도 '즐겁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안전 기업을 향해

'LG Display 안전학교'에서는 앞으로 사무직과 기술직 직원들의 교육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난이도 높은 평가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대응능력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학교 측에서는 이 두 가지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LG Display가 우리나라 최고의 안전 기업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학교의 임직원들 역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다.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의식이라고 믿고, 이를 꾸준히 개선해나가려 노력하고 있는 'LG Display 안전학교'. 이곳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한다. 그리고 이 같은 안전학교가 산업현장에 더욱 많이 생겨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에 하루빨리 진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